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연구본부장 이강진 연구위원
(063-280-7141)
- **담 당** : 사회문화연구부 이동기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81)

보도시점: 2020년 6월 10일(월)부터

FAO 세계농업대학 전북에 유치하자!

FAO, 세계식량안보대응을 위해 농업 교육훈련을 통한 인재양성 필요성 강조
전북은 세계적인 농업인프라 구축지역으로,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의 최적지

[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]

- 세계적인 농업 교육 및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전북에 FAO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이슈브리핑 'FAO 세계농업대학 설립하여 전북에 유치하자'(통권 223호)를 발간하고,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국가 차원에서 세계농업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전북이 최적지임을 밝히고, 유치를 위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.

※ 유엔식량농업기구(FAO;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)는 기아, 식량 불안 및 영양불량 퇴치, 빈곤 경감,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, 식량 안보, 지속가능한 개발, 농업혁신, 농업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.

-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는 최근 각종 기후변화, 병충해, 코로나-19 등과 같은 자연적, 인위적 재해발생으로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 위기

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, 농업혁신을 위해 농업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. FAO가 발표한 2019년 세계식량안보 및 영양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영양부족 인구수는 2018년 기준 8억 2천만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, 식량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를 지정하였는데, 아프리카 34개국, 아시아 8개국, 중남미·카리브 2개국 등 총 44개 등이다.

- 따라서, FAO의 식량안보 대응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(SDGs)을 위해 제로헹거, 식량안보, 영양개선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, FAO의 헌장에 개발도상국가의 농업, 식량, 영양 등의 향상 및 농업 역량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FAO의 세계농업대학 설립 필요성과 명분은 충분한 상태이다.
- 대한민국의 경우 농업에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핵심적인 가교 역할,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서 경험과 자산 농업의 국제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, 최근 코로나-19로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만큼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 추진에 긍정적인 역할 및 기대가 예상되고 있다.
- 연구책임을 맡은 이동기 박사는 “전북은 FAO 세계농업대학의 설립에 있어 세계최고 수준의 농업교육 및 연구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, 아시아의 농생명산업 중심지, 대한민국의 대표 농업혁신 주도 지역으로서 최고의 인프라 및 교육훈련 여건을 갖춘 최적지”라고 강조하였다.
- 특히, FAO 세계농업대학 설립은 FAO,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중요 과제이기 때문에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, 전라북도가 이니셔티브(initiative)를 설정해 나가야한다고 하였다.
- 연구원은 세계농업대학을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전문가, 공공기관, 단체 등을 포함하는 TF를 구성하고, UN FAO-정부-KOICA-전라북도 공동협력체계를 구축, 설립에 필요한 기본조건 충족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.